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

왕지윤¹, 김현주^{2*}

¹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 & 메이크업학과 교수
²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 & 메이크업학과 겸임교수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in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Beauty Major Chinese Students

Zhi-run Wang¹, Hyun-joo Kim^{2*}

¹Professor, Dept of Beauty Therapy & Makeup, College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²Adjunct professor, Dept of Beauty Therapy & Makeup, College of Beauty Art, Seok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규명하여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학기차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TOPIK 등급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은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은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있어 주요한 예측변수이며,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을 함께 촉진할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제고를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을 함께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미용전공,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국유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between the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beauty major Chinese(CN) students and examines the variables affecting the academic-self-efficacy of CN students. The study aims to obtain basic data to help improve college life in foreign countries. A survey was conducted upon 440 beauty major CN students in universities across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mesters they have been in Korea and in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ir TOPIK levels. Self-directed learning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CN students. These results showed that self-leadership and self-directed learning are major predictors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which is further reinforced when self-leadership and self-directed learning are promoted together. These results imply that there should be preceding efforts to promote both self-leadership and self-directed learning to increase the self-efficacy of CN students majoring in beauty.

Key words : Self-leadership, Beauty major,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CN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Hyun-joo Kim (dorage7@hanmail.net)

Received May 22, 2021
Accepted July 20, 2021

Revised July 2, 2021
Published July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잡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화된 융합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실정이다. 현 상황에 대체하기 위해 중국에서도 2021년 '제14차 5개년 국가발전계획(The 14th five-year-plan)'에서 '직업 및 기술 교육의 적응성 향상'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직업·기술교육의 국가기준개선, 현대 직업 및 기술교육의 질 향상, 기술 대학 및 전공 구축, 학부에서의 직업 교육, 다각화된 고등교육 체계 구축, 고등교육의 최적화된 분배 등을 모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

다양한 직업군 중 미용 관련 직업은 중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높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나, 관련 전문 교육이나 기술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 대학에서 실시하는 미용 관련 교육은 대부분 3년제 직업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치더라도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지 않는다[3]. 이는 학력과 학위를 중시하는 중국 내에서 미용전공 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용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인재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 중, 한국의 미용산업은 한류 열풍과 함께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한국 미용산업은 1990년 초반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중국 현지 방영이 한국 화장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이두 트렌드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4], 한류 콘텐츠를 처음 접한 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5].

한국 화장품 수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용교육 체계도 일찍부터 정돈되었다. 대학교육은 1991년 강릉 영동대학에서 뷰티미용과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부산 동주여자전문대학에서도 미용계열 학과가 개설되어 대한민국 최초임을 말하고 있다[6,7]. 2003년에는 서경대학교에서 서울의 4년제 학부과정 최초로 뷰티 관련학과가 설립되었으며, 2020년에 뷰티 관련학과는 4년제 대학이 114개, 전문대학이 214개로 집계되었을 정도

로 미용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8].

한국의 미용교육 환경이 중국에 비해 활성화 및 체계화되어 있어, 많은 중국유학생들이 미용을 전공하고자 한국에서 유학 중에 있다[9]. 하지만 2019년 말부터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최근의 학습환경은 유학생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강요하였다.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유학생들은 언어의 장벽뿐 아니라 수동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에게서 학습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10]. 미용수업은 대부분 실기수업을 통해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데, 실제의 실기수업 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온라인 수업은 학습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미용 관련 학과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대면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동기와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대면 수업은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자신이 학습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경우, 학습자 자신의 역량이 학습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역량 중에서도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학습성과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검증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12,13]. Lim, Yeom[11]은 셀프리더십은 학업의 흥미를 높이고, 학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목표 달성을 위한 열정 등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Lee, Jung[14]의 연구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병행된 최근의 수업 환경에서 학습자 자신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학생들에게도 셀프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10]는 중국유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수행하기 위해 셀프리더십 향상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성취도 외에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15]. 이는 자신의 학습욕구 수준을 확인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고 학습전략을 선택, 실행할 뿐 아니라, 학습성과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16].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계획적이

고 개인적인 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17] 미용 관련 지식을 익히려는 중국유학생에게 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Kim[17]과 Kim, Lee[18]는 자기주도 학습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과제를 순차적으로 달성해가는 경험을 통해서 과제를 끈기 있게 지속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Lee, Jung[14]과 Lee, Bong[19]은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셀프리더십을 개발함으로써 대학생에게 필요한 학습효과와 취업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은 수동적으로 다량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향상에는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습 효율과 성과가 매우 위축되고 있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위한 효과적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넷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 목표 설정과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본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20]. 전통적인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구성원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지만, 셀프리더십은 자신이 맡은 일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리더십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대학생에게 있어서 셀프리더십이 자신의 성장 뿐 아니라, 사회 진출에도 도움을 주는 요소이다[14]. 자율적인 관리 및 수행능력을 요구하기로 인해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본인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조정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셀프리더십이 대학생의 인지, 심리 및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21,22].

이로 인해 교육학[23], 청소년학[14], 심리학[24], 간호학[25], 미용학[3] 등 분야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입학 동기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며[25],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육의 질 적응, 관계 적응 및 대학공부 적응이 셀프리더십과 관계가 있다고 제시되었다[22]. 그리고 관련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주요 요인이 의사소통능력이라고 보고하였다[26]. 또한 셀프리더십과 감성지능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대학생생활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10]. 한국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개발을 통해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학습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와 학습 열정을 더해주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14].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셀프리더십은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2.2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타인의 도움과 관계없이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동기 확인, 학습목표 설정, 학습에 소요되는 자원 확보, 학습전략 선택 등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자신의 학습성과를 평가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6].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이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여 보완할 수 있고, 학생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탐색할 수 있다[27].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학업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며, 학습 성과는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28-30].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동기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즉 셀프리더십이 선행되어야 한다[31]. 선행연구[31-34]에서도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 중, 셀프리더십의 영향력이 가장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립성과 주도성에 관련된 셀프리더십의 성격은 자기주도학습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심리학자인 Bandura[35]에 의해 '학습자가 학습상황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정의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 더 어려운 과제를 도전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학업적 과제에 긴 시간을 투입한다[36,37].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업에 대한 애착과 책임을 가지고 학습에 성취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38]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능력을 믿고,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스스로가 자기조절의 수행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어려운 과제 및 상황을 기피하려 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능력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39].

Lee[40], Park & Do[41]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이 선택한 학습방법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성공을 느끼게 되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Kim[42]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학습에 적용한 전략은 성취감을 발생시켜 자신감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수준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17]의 연구에서도 자기주도학습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와 함께 자기주도학습이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변수임을 유추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목적을 검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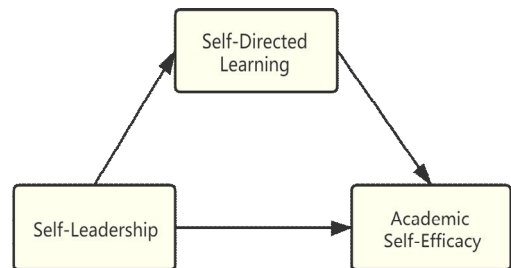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형 중국어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미용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확대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8월까지로, 미용전공 유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이 1년에 2회, 3월과 9월에 각각 신입학하는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기차별로 조사하였다. 회수한 설문지는 452부였으며, 미흡한 응답의 12부를 제외하고, 최종 총 440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3 연구도구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셀프리더십 9문항, 자기주도학습 12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셀프리더십은 박지윤[43]이 구성한 문항,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하영[44]이 구성한 문항, 자기주도학습은 Lee, Jung[14]이 구성한 문항을 채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연구 대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다섯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주도학습을 매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Hayes[45]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시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22명(5.0%), 여성이 418명(95.0%)으로 나타났고, 나이는 만 22세 미만이 235명(53.4%), 만 22세 이상이 205명(46.6%)으로 나타났으며, 학기는 1~2학기가 109명(24.8%), 3~4학기가 132명(30.0%), 5~6학기가 119명(27.0%), 7~8학기가 80명(18.2%)으로 나타났다. 한국체류기간은 3년 미만과 3년 이상으로 통계하여 266명(60.5%), 174명(39.5%)으로 나타났고, TOPIK 2급, 3급, 4급, 5급 6급을 얻은 자가 59명(13.4%), 160명(36.4%), 149명(33.9%), 57명(13.0%), 15명(3.4%)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전공이 152명(34.5%), 피부전공이 288명(65.5%)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440)

	Division	n	%
Gender	Male	22	5.0
	Female	418	95.0
Age (year)	<22	235	53.4
	22≤	205	46.6
Semester	1~2	109	24.8
	3~4	132	30.0
	5~6	119	27.0
	7~8	80	18.2
Period of stay in Korea	3 years>	266	60.5
	3 years≤	174	39.5
TOPIK	Level 2	59	13.4
	Level 3	160	36.4
	Level 4	149	33.9
	Level 5	57	13.0
	Level 6	15	3.4
Major	Skin	288	65.5
	Makeup	152	34.5
Total		440	100.0

4.2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신뢰도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673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of key variables

Variables	No. of question	Cronbach's α
Self-Leadership	9	.794
Self-Directed Learning	12	.863
Academic Self-Efficacy	12	.673

4.3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의 수준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08점, 자기주도학습은 5점 만점에 3.70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변수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산출하였다. 첨도와 왜도는 각각 절댓값 3.7 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46]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echnical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Self-Leadership	4.08	0.51	0.02	-0.26
Self-Directed Learning	3.70	0.62	-0.17	0.06
Academic Self-Efficacy	3.24	0.51	0.06	-0.28

4.4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학기와 TOPIK 성적에 따라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4.4.1 학년에 따른 차이

학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기주도학습(F=5.451, p<.01)은 1~2학기가 3~4학기, 7~8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Table 4. Differences according to semester

Variables	Semester	N	M±SD	F	p (Scheffe)
Self-Leadership	1~2	109	4.14±0.55	0.738	.530
	3~4	132	4.06±0.46		
	5~6	119	4.05±0.54		
	7~8	80	4.08±0.51		
Self-Directed Learning	1~2 ^a	109	3.88±0.62	5.451**	.001 (a),b,d)
	3~4 ^b	132	3.64±0.58		
	5~6 ^c	119	3.70±0.62		
	7~8 ^d	80	3.54±0.64		
Academic Self-Efficacy	1~2	109	3.31±0.52	1.468	.223
	3~4	132	3.18±0.51		
	5~6	119	3.21±0.53		
	7~8	80	3.27±0.49		

** p<.01

4.4.2 TOPIK 성적에 따른 차이

TOPIK 성적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F=4.905, p<.01)은 5, 6급이 2급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Table 5. Differences according to TOPIK

Variables	Grade	N	M±SD	F	p (Scheffe)
Self-Leadership	Level 2	59	4.05±0.50	0.871	.481
	Level 3	160	4.09±0.51		
	Level 4	149	4.12±0.53		
	Level 5	57	3.98±0.46		
	Level 6	15	4.13±0.62		
Self-Directed Learning	Level 2	59	3.70±0.51	0.526	.716
	Level 3	160	3.65±0.65		
	Level 4	149	3.72±0.67		
	Level 5	57	3.71±0.50		
	Level 6	15	3.85±0.65		
Academic Self-Efficacy	Level 2 ^a	59	3.00±0.55	4.905**	.001 (a),d,e)
	Level 3 ^b	160	3.23±0.51		
	Level 4 ^c	149	3.27±0.49		
	Level 5 ^d	57	3.36±0.47		
	Level 6 ^e	15	3.43±0.53		

** p<.01

4.5 상관분석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든 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Table 6.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1. Self-Leadership	1		
2. Self-Directed Learning	.601**	1	
3. Academic Self-Efficacy	.399**	.520**	1

** p<.01

4.6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자기주도학습을 매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45]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사용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 1단계에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82.88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15.9%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셀프

리더십이 종속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399, p<.00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한 2단계에서도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47.893,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36.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은 매개변수인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729, p<.001).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3단계에서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85.736, p<.001), 모형의 설명력은 약 28.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셀프리더십(B=0.135, p<.01)과 매개변수인 자기주도학습(B=0.361, p<.001) 모두 종속변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1단계에서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매개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3단계에서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은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between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t
Academic Self-Efficacy	(Constant)	1.611	.180	8.951***
	Self-Leadership	0.399	.044	9.104***
F=82.888***, R ² =.159				
Self-Directed Learning	(Constant)	0.722	0.190	3.793***
	Self-Leadership	0.729	0.046	15.745***
F=247.893***, R ² =.361				
Academic Self-Efficacy	(Constant)	1.350	0.169	7.978***
	Self-Leadership	0.135	0.051	2.669**
	Self-Directed Learning	0.361	0.042	8.640***
F=85.736***, R ² =.282				

** p<.01 *** p<.001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양(+)의 값을 보였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B=.399, CI: .313~.485)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킨다고 할 수 있다. 직접효과(B=.135, CI: .036~.235)와 간접효과(B=.263, CI: .198~.338)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개변수인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 8. Bootstrap result (No. of samples=5000)

	B	SE	LLCI	ULCI
Total effect	.399	.044	.313	.485
Direct effect	.135	.051	.036	.235
Indirect effect	.263	.035	.198	.338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도 미용전공 중국유학생들이 전공지식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여 성공적인 유학생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 중 남성에 비해 여성이 대부분 비율을 차지하였으며(95.0%), 한국체류기간은 3년 이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60.5%). TOPIK은 3급(36.4%)과 4급(33.9%)이 대부분이었으며, 전공은 피부가 288명(65.5%), 메이크업이 152명(34.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이 전공 선택에 있어 메이크업보다 피부전공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국 미용 시장에서 피부미용분야가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다른 미용분야에 비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Jiang&Yan의 연구[47]에서 중국 피부미용업의 고속 발전에 따라 전문 피부미용 인재의 공급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중국 고등직업교육의 질적, 양적 발전에 있어 국제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해야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가 신뢰도를 만족하여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에게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한 결과, 셀프리더십 수준이 4점 이상(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일반 한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균 3.39점[4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수준을 보고한 Jung의 3.4±0.43점[25]과 Lim, Yeom의 평균 3.62점[11], 전문대 미용전공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균 3.24점[49]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유학생들은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유학을 결정하였으며, 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실행할 정도의 강한 내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언어 문제로 인하여 변화된 수업 환경의 적응 문제, 중국과 한국의 수업 방식의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학기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의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2학기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이 3~4학기과 7~8학기에 재학 중인 중국유학생보다 높은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유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 한국학생들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취업스트레스가 적고, 반면 한국어 실력이 향상된 만큼 학교생활에도 적응하게 되어 학업 이외의 활동, 즉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학습에 대한 관심과 자기주도력이 약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주도학습은 자기효능감, 끈기, 몰입 등과 같은 내재적이고 정서적인 특질뿐만 아니라 멘토의 피드백, 교수자 간의 소통이나 사회적 실재감 등 사회적 상황적인 요인에도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 Lee 등[50]의 연구와 교수들은 중국문화와 유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통해 서로 교류를 촉진시켜 유학생의 자기주도학습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 Zhang 등 [5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다섯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TOPIK 5, 6급의 중국유학생이 2급인 중국유학생보다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과정에서 한국어 수준이 낮은 중국유학생 보다 한국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유학생이 전공지식과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과제 수행으로 더 높은 학점을 얻으므로 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주

도학습,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에,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셀프리더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셀프리더십은 행복감[52], 책임감[10], 유대감[53] 문제해결력[54], 학습몰입[55]등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은 학습능력[17], 학습참여도[50], 학업성취도[56] 등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므로,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에게도 이러한 셀프리더십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한다면 학업적 자기효능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서울 소재한 4년제 대학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에 대한 확대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Xinhua News Agency. (2021). *The Fourteenth Five-Year Plan for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Outline of the Long-term Goals for 2035*. (Online). http://www.gov.cn/xinwen/2021-03/13/content_5592681.htm
- [2] D. Min. (2018). *Overview and Development Trend Evaluation of China's Beauty Industry*. WORLD GARDEN(Online). <http://www.qikan.com/>
- [3] Z. R. Wang.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of Chinese Students in Beauty Maj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 251-259. DOI : 10.22156/CS4SMB.2020.10.01.251
- [4] E. H. Choi & W. W. Zhao. (2018). The Impact of Korean Wave on Korean Cosmetics Exports to China. *Journal of northeast Asian economic studies*, 30(3), 21-43.
- [5] J. Y. Kim & H. T. Lee. (2017). The Effects of Korean Wave on the Korean Cosmetics Brand

- Image of the Chinese Consumers: Focusing on College Students in Beijing.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19(2), 1-33.
- [6]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n. d.). *Department Introduction: Department of Beauty and Cosmetology*. (Online). <https://www.gyc.ac.kr/beautyart/index.html?menuKey=2>
- [7] Dongju College. (n. d.). *School Of Cosmetology*. (Online). <http://bc.dongju.ac.kr/default/sub/subLocation.dj?categorySeq=1150401&menuSeq=115040101&confSeq=&boardSeq=-1>
- [8] Ministry of Education. (2020). *2020 Department (Major) classification databook*.
- [9] H. Y. Xu & J. A. Lee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Beau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4(6), 1256-1267.
- [10] Z. R. Wang & J. A. Lee. (2020).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Beauty Major Chines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11), 340-348. DOI : 10.5762/KAIS.2020.21.11.340
- [11] S. M. Lim & Y. R. Yeom. (2020).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to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both Online and Offline Lectur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1), 107-116.
- [12] Y. J. Lee. (2020). The Effects of the Havruta Learning Method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1279-1295.
- [13] M. R. Eom & Y. I. Lee. (2020).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Havruta Method in Engineering Edu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1), 149-157. DOI : 10.22156/CS4SMB.2020.10.01.149
- [14] Y. J. Lee & K. S. Jung. (2018).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and Campus-life Satisfaction Leve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 391-410. DOI : 10.21509/KJYS.2018.01.25.1.391
- [15] H. J. Ha & S. J. Woo. (2020). The Effect of After School Program Applying Flipped Learning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9), 79-87. DOI : 10.22156/CS4SMB.2020.10.09.079
- [16] M. S. Knowle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d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t Pub. Co.
- [17] E. J. Kim. (2014).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f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2), 303-326.
- [18] K. H. Kim & G. H. Lee. (2020).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Key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8(4), 117-143. DOI : 10.18230/tjye.2020.28.4.117
- [19] E. S. Lee & E. J. Bong.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07-114. DOI : 10.14370/jewnr.2017.23.2.107
- [20] C. P. Neck, G. W. Stewart & C. C. Manz. (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3), 278-302.
- [21] M. S. Lee, Y. G. Lee, & T. G. Jung, (2017). The relationship among the self-leadership, self-esteem, learning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by college students of physical education major.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6(2), 131-145.
- [22] Y. J. Bae & S. H. Park.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Adaptation, Self-Leadership, Learning Commitment, and Career Adapt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6), 104-111. DOI : 10.22156/CS4SMB.2019.9.6.104
- [23] J. Y. Park. (2017).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Master's Program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4] Y. K. Shin, M. S. Kim & Y. S. Han. (2009). A study

-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3), 313- 340.
- [25] I. S. Jung. (2018). A Study on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elf-leadership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5), 51-58.
DOI : 10.22156/CS4SMB.2018.8.5.051
- [26] M. J. Yun & Y. C. Kwon. (2018).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ability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1), 433-440.
DOI : 10.14400/JDC.2018.16.11.433
- [27] H. B. Yuan, B. A. Williams, J. B. Fang, & D. Pang. (2012). Chinese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readiness for self-directed learning. *Nurse Education Today*, 32(4), 427-431.
- [28] I. S. Kim & J. H. Lee. (2004).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13(3), 129-154.
- [29] E. Şenyuva & H. Kaya. (2014). Effect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nursing students of the web based learning.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2, 386-392.
- [30] P. Chou. (2012). Effect of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on online learning outcomes: two exploratory experiments in electronic engine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2(6), 172-179.
- [31] E. S. Lee & E. J. Bong. (2017).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3(2), 107-114.
- [32] D. H. Oh.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the sel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aptain*. Master's Program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Seoul.
- [33] A. S. Hong & H. Y. Shin. (2014). The Effect of Teacher's Efficacy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Childedu*, 23(4), 111-126.
- [34] S. Y. Lee & Y. Y. Kim. (2016).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3), 309-318.
DOI :10.14400/JDC.2016.14.3.309
- [35]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36] A. Bandura & D. H. Schunk.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
- [37] D. H. Schunk & J. M. Rice. (1989). Learning goals and children's reading comprehension.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1(3), 279-293.
- [38] J. H. Lee. (2013).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Master's Thesis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 [39] H. Y. K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Seoul.
- [40] J. H. Lee. (2013). *The Effec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utilizing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Psychotherapy Hansei University.
- [41] T. Y. Park & M. H. Do. (2015) The Impact of a Self-Directed Learning Coaching Program on Academic Self-Efficacy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8(3), 91-107.
- [42] M. H. Kim. (2012). *The Effects of th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raining Program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43] J. Y. Park. (2017).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Master's Program Department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44] H. Y. Kim.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Th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Seoul.

[45] A. F. Hayes.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46] R. B. Kline.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47] Z. Jiang & P. Yan. (2021).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and Practice of Medical Cosmetology in Higher Vocational Colleges. *China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13(12), 94-97.
DOI : 10.3969/j.issn.1674-9308.2021.12.026

[48] M. A. Shin. (2017).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leadership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1(6), 225-236.
DOI : 10.21184/jkeia.2017.08.11.6.225

[49] M. H. Kim & Y. J. Kim.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rts on Their Learning Effects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DESIGN CULTURE*, 22(4), 25-36.
DOI : 10.18208/ksdc.2016.22.4.25

[50] S. M. Lee, S. Y. Mun, Y. S. Moon, H. Y. S. Kim & N. H. Kim. (202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Online Learning Caused by COVID-19: A Moderating Effect of Self directed Learning. *Journal of Competency Development & Learning*, 16(1), 169-199.
DOI : 10.21329/kl.d.2021.16.1.169

[51] M. Y. Zhang & Y. H. Kim. (2019).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on Participation in Learning :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Tourism Research*, 44(4), 251-286.
DOI : 10.32780/ktidoi.2019.44.4.251

[52] J. A. Lee & M. J.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elf-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and Happiness in Undergraduates. *AJMAHS*, 10(24), 13-21.
DOI : 10.14257/AJMAHS.2016.10.10.

[53] E. Yoon, R. M. Lee & M. Goh. (2008) Acculturation, Social connected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3), 246-255.

[54] J. H. Jang. (202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elf-learning, Self-efficacy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for*

the Science-gifted and the Ordinary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jor in Gifted Education in Scienc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 32

[55] Y. M. Kim. (2016). Mediation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tween Self-leadership and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112-122.
DOI : 10.5762/KAIS.2016.17.7.112

[56] H. S. Cho. (2007).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32(2), 57-72.

왕 지 윤(Zhi-run Wang)

[정회원]



- 2012년 2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 학학사
- 2014년 2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 대학원 미용예술학석사
- 2018년 2월~현재: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박사
- 2014년 7월~2016년 6월 : 중국닝보위생직업기술대학 의학미용기술전공 교수
- 2019년 3월~현재 : 서경대학교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스파테라피, 화장품, 미용교육
- E-Mail : lswangzhirun@ hotmail.com

김 현 주(Hyun-joo Kim)

[정회원]



- 2005년 8월: 건국대학교 산업 대학원 향장학석사
- 2018년 8월: 동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 2015년 3월~현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겸임교수
- 2015년 3월~현재: 송실사이버대학교 뷰티미용학과 외래 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화장품, K-Beauty, 미용교육
- E-Mail : dorage7@hanmail.net